

石油産業의 현황과 전망



李 相 哲
(極東石油 副社長)

I. 머리말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어온 石油産業은 오늘날 國際原油價의 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다.

장기적인 세계경기 침체와 소비국의 脫石油政策으로 인한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石油産業의 구조개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產油國의 하류부분 진출강화, 유종간 수급불균형등 새로운 시장여건의 변화는 80년대 후반의 石油産業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石油産業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석유전문가와 연구기관이 高見과 卓論을 전개해온 터라 본 시간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는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여건변화등을 개론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石油産業의 現況

1. 世界의 石油産業

(1) 原油市場의 安定과 OPEC의 地位弱화

2차 석유파동이후 高油價가 몰고온 세계적인 경

제불황과 경기침체는 석유의 절대 수요량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국의 석유의존도 감축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가속화를 초래했다. 석유소비국의 수요 감축 노력으로 79년 52백만B/D에 달하던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83년 44.3백만B/D까지 감소되어 76~78년의 연평균 4.2%의 증가에서 79~82년에는 2.2%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점진적 수요감소는 2차 석유파동 당시 OPEC의 基準公式價(A/L) \$34/Bbl을 \$28/Bbl까지 끌어내리면서 80년 이후 지속적인 가격인하 압력을 가해 오고 있으며, 이에 맞서 감산으로 油價를 방위하려는 OPEC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국제 原油價는 감산과 공급 중단이 더 이상의 「傳家の 寶刀」가 아니라는 최초의 좌절을 OPEC에게 안겨주며 당분간 하향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중반 30백만B/D 이상의 산유량을 자랑하며 세계 총 산유량의 55%, 자유세계 산유량의 65% 이상을 생산하던 OPEC의 최근 산유량은 85년 4월 16.3백만B/D에서 5월 14.8백만B/D로 다시 7월 중에는 13.8백만B/D로 감소하면서 과거 20년간의 최저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의 감축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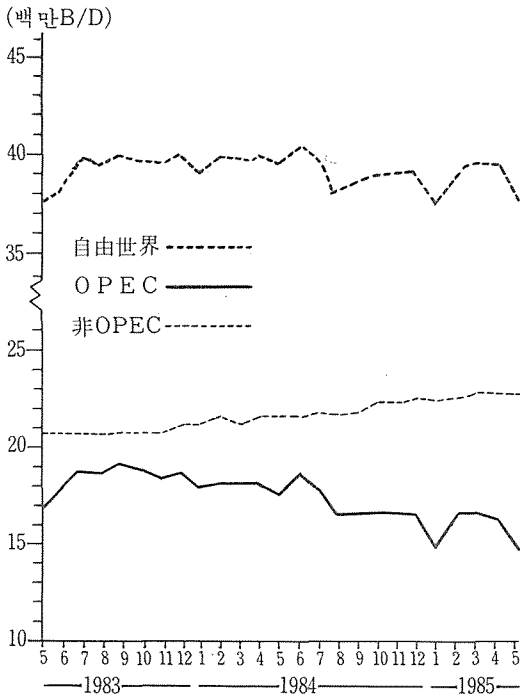
자유세계의 石油消費 추이

(單位: 百萬B/D)

| | 1980 | 1981 | 1982 | 1983 |
|------|------|------|------|------|
| 自由世界 | 48.9 | 47.3 | 45.7 | 44.3 |
| 共產圈 | 12.7 | 12.8 | 12.8 | 13.0 |
| 計 | 61.6 | 60.1 | 58.5 | 57.3 |

〈資料〉 IEA

산유량 변동추이



〈資料〉 PIW

이와는 대조적으로 非OPEC 국가의 산유량은 세계적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하여 85년 5월의 산유량은 22.7백만B/D로 1~5월 평균 22.6백만B/D보다도 소폭 증가한 현상을 보이며 79년 63.4%에 달하던 OPEC의 시장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非OPEC국의 산유량 증가는 이들의 가격정책이 종래의 경직된 기간가격개념에서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는彈力的 가격정책으로 전환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카르텔이라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OPEC에 대하여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새로운 價格政策의 모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든 오늘날의 국제 原油市場은 OECD를 중심으로한 주요 소비국의 석유의존도 감축이라는 강한 의지와 가격하락으로 방어코자하는 OPEC의 끈질긴 노력이 날카로운 「挑戰과 應戰」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非OPEC을 중심으로 한 原油價의 시장가격 접근은 원유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 OPEC의 精製能力增大

下流部門진출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OPEC의 정제능력은 최근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금년부터 잇달아 본격적 가동이 시작되는 사우디를 비롯한 OPEC의 수출용 정유공장으로 OPEC제국의 정제능력은 84년 5,325천B/D에서 2,340천B/D가 추가되어 87년까지는 7,665천B/D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OPEC제국의 이와같은 정제능력 증대는 80~90%의 가동률을 유지할 경우 자국내의 수요를 감안하고서도 약250~350만B/D의 석유제품을 수출할 능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석유제품이 국제석유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80~81년 12%에 불과하던 세계석유무역중 석유제품의 비중이 86~87년도에는 25~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석유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OPEC의 정제시설 증대와 제품생산량의 증가는 수요감소와 시설과잉에 시달리는 소비국의 精製産業에 더욱 고통스러운 압박을 가하면서 국제석유시장에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石油産業

(1) 原油導入形態의 變化

2차 石油波動 당시 소요원유전량을 메이저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는 產油國의 메이저에 대한 공급량 감축의 영향으로 심각한 공급부족상태를 체험했다.

당시 530천B/D에 달하던 合作先인 Gulf, Caltex, Union의 原油 공급량은 79년 이란 회교혁명

으로 야기된 2차 석유파동 이후 345천B/D로 줄어들어 소요원유의 절대량 부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배럴당 수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高價의 현물시장원유를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2차 석유파동의 시련은 우리나라 原油導入政策에 중대한 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당시까지의 메이저에 의한 간접도입 방식에서 産油國으로부터의 직접도입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정부와 정유사는 적극적인 자원의교를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中東地域에 상존하고 있는 政情不安을 고려, 보다 안정적인 원유도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脫 中東政策인 原油導入先 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79년 이전 100%의 中東依存度를 83년 74%, 84년에는 68%까지 낮추었으며, 도입국의 수도 1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80년대 들어 국제 원유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강조되기 시작함으로써 장기계약을 근간으로 하던 원유도입 정책은 일정수준까지의 低價 현물시장 원유도입을 허용하는등 국제원유시장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으며,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하나 海外 유전개발·시추등 上流部門의 진출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2) 石油依存度減少와 需要構造의 變化

75년 79.2%에 달하던 産業部門에너지의 석유의 존도는 경기침체와 2차 석유파동 이후 전개된 정부의 脫石油政策의 영향으로 83년 50.2%까지 감소되었으며, 이와같은 석유의존도의 감소추세는 수요량의 완만한 증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2000년대까지는 약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輕·中質油는 계속적인 수요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의 연료 대체로 말미암아 重質油의 수요는 크게 감소되고 있어 유종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의 輕質化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석유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産業部門의 에너지消費構造 추이

(單位：構成比，%)

| | 1975 | 1980 | 1983 |
|----------|---------------|----------------|----------------|
| 石油 | 79.2 | 65.6 | 50.2 |
| 에너지油 | 64.8 | 48.6 | 32.9 |
| 非에너지油 | 14.4 | 17.0 | 17.3 |
| 石炭 | 9.3 | 22.3 | 35.8 |
| 無煙炭 | 3.5 | 2.0 | 1.4 |
| 有煙炭 | 5.8 | 20.3 | 34.4 |
| 電力 | 11.5 | 12.1 | 14.0 |
| 計 (千TOE) | 8,883 (100.0) | 16,362 (100.0) | 17,431 (100.0) |

〈資料〉 動力資源部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수요의 輕質化와 함께 최근 국내에너지 수요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제품의 高級化 요구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産業化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부문에 있어서도 저유황 연료유의 공급확대를 정책목표로 채택하여 중전 4.0%와 1.0%의 B/C유 및 輕油 유향함량을 각각 1.6%와 0.4%까지 낮추어 공급하도록 그 사용의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도시연료의 가스化,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無鉛휘발유의 공급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損益構造變化와 油價管理制度

석유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投資所要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정유부문 손익구조의 악화는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성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최근 몇년동안의 정유사 손익구조악화는 2차 석유파동으로 폭등한 國際原油價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민생안정과 국내산업보호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정부의 경직된 가격정책과 80년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라 발생하는 원유도입 환차손의 실세반영 미달과 누적적 반영에 따른 가격조정시점 지연 등이 정부의 脫石油政策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精油產業의 損益動向

(單位：억원)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計 |
|-----------|------|------|------|------|------|------|
| 정유부 손익 | -575 | -246 | 529 | 15 | 17 | -260 |

收益性 비교

(單位：%)

| | 1983 | | 1984 | |
|---------|------|------|------|------|
| | 정유산업 | 제조업 | 정유산업 | 제조업 |
| 매출액이익률 | 0.02 | 1.66 | 0.46 | 1.20 |
| 자기자본이익률 | 7.36 | 9.60 | 6.92 | 6.81 |
| 총자본이익률 | 1.10 | 2.03 | 1.32 | 1.52 |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 정유사의 정유부문 손익추이를 보면, 80년에서 84년까지의 누적 적자폭이 2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國際原油價가 안정세를 유지했던 84년에도 정유5사의 정유부문 이익이 17억원에 불과해 같은 해 가전3사의 380억, 자동차제조업의 590억, 시멘트제조업의 410억, 섬유업의 210억과 비교해 볼 때 외형 6조원을 상회하는 精油產業의 이익이 어느 수준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별정유사의 손익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80년 11월 19일 油價調整時부터 도입된 정유사 평균비용에 의한 유가관리방식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사 전체의 平均제조비용을 기초로 油價를 결정하는 현행방법은 정유5사 전체이익의 관리와 조정이 용이하며, 一見 각 정유사가 인정한 범위내에서 경쟁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된 것 처럼 보이나, 이는 원가절감과 經營合理化 등 기업의 자체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예전대 규모의 상대적 영세성에서 오는 제조원가의 상승,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Sales Mix의 변화, 시설투자에 따른 고정비의 증가 등-개별 기업의 특수성이 平均化과정에서 전체 정유사에 공통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자사의 비용증가가 타사의 이익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려는 精油社와 이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견대립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이 엄격한 정부 고시가격으로 통제되고 있는 價格體制下에서의 이와같은 유가관리방식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精油社에 대하여는 실제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판매가격이 결정됨으로써 항구적인 官制 損失을 확정지를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는 대규모 정유사에 대하여는 이익시현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社別 損益不均衡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격의 완전한 자율화와 시장자유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별 정유사의 경영규모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실제제조비용과 Sales Mix를 사별로 파악, 기금과 관세 등 정부부문 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익의 平準化를 도모하여 개별 정유사의 경영체질을 강화해 가는 油價管理方式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약 1.3%의 油價引上 요인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누적되는 환차손의 適期油價反映을 위하여 油價·換率連動制의 실시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믿어진다.

Ⅲ. 石油產業의 展望

1. 世界原油市場의 環境變化

(1) 原油市場의 互惠의 循環

오늘날의 세계원유시장은 OECD를 중심으로 한 소비국의 석유수요감축노력과 OPEC를 중심으로 現行油價를 고수하려는 產油國의 원유감산정책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공급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만성적인 원유의 「수요자위기」가 「공급자위기」로 옮겨가는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변화로 말미암아 OPEC를 비롯한 產油國들은 표면적인 原油價 방어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高油價政策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수요국의 脫石油政策을 가속화하게 되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요감퇴가 잠재적 수요로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구적인 수요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OPEC 및 GCC諸國 石油製品 輸出量 展望

(單位：千B/D)

| 輸 出 國 | 生 産 | 内 需 | 輸 出 |
|-----------|-------|-------|-----------------|
| 바 레 인 | 225 | 16 | 209 |
| 쿠 웨 이 트 | 640 | 95 | 545 |
| 오 만 | 45 | 29 | 16 |
| 카 타 르 | 55 | 16 | 39 |
| 사우디아라비아 | 1,655 | 614 | 1,041 |
| U A E | 160 | 125 | 35 |
| G C C 計 | 2,780 | 895 | 1,885 |
| 이 란 | 975* | 740 | 0-235* |
| 이 라 크 | 385* | 430 | 0* |
| 其 他 中 國 | 1,360 | 1,170 | 0-235 |
| 알 제 리 | 390 | 130 | 260 |
| 에 콰 도 르 | 75 | 127 | - |
| 가 봉 | 15 | 44 | - |
| 인 도 네 시 아 | 810 | 550 | 260 |
| 리 비 아 | 315 | 146 | 170 |
| 나 이 지 리 아 | 350 | 221 | 129 |
| 베 네 수 엘 라 | 1,220 | 420 | 800 |
| 非中 國 OPEC | 3,175 | 1,638 | 1,619 |
| 計OPEC+中 國 | 7,315 | 3,703 | 3,504~ 3,739 |
| O P E C 計 | 7,045 | 3,660 | 3,279~ 3,514 |

註：*이란·이라크戰爭의 向方에 따라 變化

다.

따라서 향후의 국제 原油價는 石油産業의 3역-산유국, 소비국, 석유회사-간에 價格安定이라는 장기목표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상호호혜성을 인정하여 과거의 高油價, 低生産→경제성장둔화, 경기침체→수요감퇴, 대체에너지 개발촉진→공급과잉, 가격하락이라는 대립적 순환에서 적정유가, 적정생산→경제성장촉진, 경기부양→수요증가→적정유유지라는 호혜적 순환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호혜적 순환에 있어서의 油價는 산유국이나 소비국의 시장조작이나 영향력 행사에 의하기 보다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접근하여 소폭으로 민감하게 변동하며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油價의 시장세 접근이 곧 OPE

C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OPEC는 중전 油價의 기간유지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계약과 현물거래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상대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非OPEC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은 原油價의 하락으로 소비국의 대체에너지개발이 중단될 경우, 또는 原油價가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는다는 예측이 가능해질 경우 석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새로운 제3의 석유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이 늦어질 경우, 부존량의 한계로 인한 석유공급 부족현상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PEC 平均公示價 展望

(單位：\$ / B)

|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DRI | 26.75 | 26.50 | 26.60 | 28.00 | 30.00 | 32.50 |
| WEFA | 27.80 | 27.63 | 27.64 | 30.26 | 32.79 | 34.89 |
| NIESR | 28.75 | 30.76 | - | - | - | - |

〈資料〉 DRI, European Long-Term Review, March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5.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Feb. 1985.

(2) 産油國의 製品供給増大와 그 影響

産油國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87년 OPEC의 제품수출은 경질유분 57만B/D, 중간유분 80만B/D, 중질유분 52만B/D 정도로 총 190만B/D가 석유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경질유분과 중질유분은 自國內의 수요증가와 수요구조의 경질화에 따른 신규수요에 의하여 기존시장을 압박하지 않고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산유국의 하루부문 진출이 소비국 경제업의 가동률을 낮추고, 일부 노후시설의 유휴화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품의 投賣行爲 등을 통한 시장교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유시설의 遊休化는 무분별한 과잉시설투자와 석유수요의 감소, 경질화로 급속히 변화해가는 수요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제시설을 보유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우기 산유국의 제품판매가격 결정에는 자국원유수출과의 이해상충(동서센터의 Fesharaki 박사는 『100만B/D의 제품이 시장에 유입될 때 原油의 같은 양이 시장에서 줄어들지 않으면 현물시장의 原油價는 \$4/B의 인하요인을 갖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비 부담(동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50천톤급의 원유수송선의 주배일-싱가포르 운임이 3.94달러(W/\$42)일 경우 30천톤급의 제품수송 운임의 12.19달러(W/S130)로 추정)를 비롯하여 OPEC회원국간의 이해대립, 소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OPEC의 제품수출은 현재 세계석유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OPEC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제품의 상당량을 동남아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中共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다.

실제로 현재 중공의 태평양권에 있어서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中東各國을 앞지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中共은 인도네시아의 정유공장 증설의 영향으로 싱가포르의 시장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기화로 日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태평양권에 있어서 中共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석유제품시장의 변화속에서 Upgrading 시설기반이 미약한 동남아 소비제국은 계속되는 수요의 경질화와 발전부문의 석유수요 감축으로 重質製品的의 과잉해소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될 것이다.

2. 国内 石油産業 展望

(1) 原油導入 정책방향

2차 석유과동 이후 안정성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온 原油導入체제는 세계 원유시장 안정화에 따라 안정성과 함께 경제성이 똑같이 강조되는 효율적인 도입체제를 구축하면서 현물시장의 활용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原油 導入先의 다변화는 계속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추진될 것이며 도입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탐사·시추등 上流部門 진출과 산유국과의 자원의교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도입원유의 성상은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처코자 하는 精油社의 노력으로 점차 輕質·저유황化 되어갈 것이며, 정부의 자율화정책에 편승하여 精油社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원유도입에 있어 민간상사의 참여가 서서히 증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2) 油種間 수급불균형과 정책의 선택

대체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수요구조는 81년까지는 사용원유의 평균성상이 A/H에 해당하였으나, 82년에는 A/M에 해당하는 성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83년 以後부터 급격한 경질유로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需要의 輕質化 요구는 전반적인 석유수요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輕質油 不足·重質油 과잉이라는 유종간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해결방안이 계속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복합적으로 조화있게 운용되어질 것이다.

○輕質原油使用-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原油의 점진적 重質化로 장기적 대책은 될 수 없으나 계속 추진해야 함.

石油需要構造 전망

(單位: %)

| | 1983 | 1984 | 1986 | 1991 | 1996 | 2001 |
|-----|------|------|------|------|------|------|
| 輕質油 | 52 | 54 | 59 | 68 | 71 | 71 |
| 重質油 | 48 | 46 | 41 | 32 | 29 | 29 |
| 計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資料〉 動力資源部

○製品輸出入-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과 함께 일부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전적으로 해외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성과 고수송비, 제품저장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선행 등 경제성이 불확실하므로 능동적 방안은 되지 못함. 보조기능으로서의 활용 가능.

○重質油 分解施設- 가장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對應方案으로 현재 건설중인 極東石油에 대한 설치허가는 매우 적절한 정책의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추가설치시에는 국내 수요, 공급의 정확한 예측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3) 精油産業의 구조개편과 경영합리화

석유수요의 감소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누적되는 換差損으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 등으로 국내 精油産業의 경영기반은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OPEC의 下流部門 진출 확대, 석유수요증가의 둔화, 原油의 重質化와 제품수요의 輕質化등 국제석유시장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精油産業의 장래는 그리 밝다고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국내 유류수급과 가격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精油産業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는 精油産業의 구조개편과 이를 통한 경영합리화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精製施設의 효율성 제고- 노후화된 1차 정제시설의 개체 및 용도전환으로 가동률제고, 重質原油 정제시설 및 重質油분해시설등 정제시설의 고도화추진.

투자의 효율성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지원강화

○事業의 다양화- 上流部門으로의 진출, 임가공·국제병커 등을 통한 해외부문 수요창출, 石油化學·운활유·가스사업 등 수평적 多角化 방안모색

○原價절감시스템구축-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시설, 유통비용절감(구조 합리화와 장거리 송유관 건설)

○政策제도개선- 유종간 가격 불균형해소, 수출입 정책의 탄력적 운용

精油産業의 구조개편은 개별 정유사의 특성 및 경영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정유사는 자사 실정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기업전략을 수립, 이의 추진을 위한 자체능력을 배양하고 정부는 개별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최대한의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石油産業 특히 精油産業이 더 이상의 장래가 밝은 성장산업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경제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石油가 세계에너지원의 주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다.

石油의 자리를 대체할 획기적인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한 전 세계의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石油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면 石油産業의 앞날이 그리 어둡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파동 피해간다